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올바른 교육과정 개정방안

[발제자]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

[일 시] 2022년 12월 01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Google Meet 온라인 세미나



☒ 문자 후원

#7079-4545

제415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달성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저작의 모본이자 수업 및 시험의 바탕이 된다. 좋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풍성하고 유익한 공부와 삶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집필기준이 중요하다. 교육과정의 기본 질문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는 교육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 교육과정은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10년 주기로 백서를 만들어서 연차별, 순차별

로 국가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단기, 일시적인 개정은 멈추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고교와 대학의 학습을 연계하여 진로 선택의 기회를 더욱 늘려주어야 한다. 올바른 가치관은 교육에서 이뤄진다. 문제투성이인 교과서를 본래 교육목표와 검정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 국가교육과정의 문제

- ◆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달성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저작의 모본이자 수업 및 시험의 바탕이 된다. 좋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풍성하고 유익한 공부와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기준이 중요하다. 교육과정의 기본 질문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는 교육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과인 학문과 학습자인 개인, 사회 공동체, 직업 등과 같은 계열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한 종합과 절충이다.
- ◆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전면 개정이 너무 잦다. 초중등학교 기준으로 4~5년 만에 교과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진다. 그것도 일정 주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한다. 외국이 10년에 한번, 그것도 30~50개월에 걸쳐 교육과정을 천천히 바꾸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이다. 졸속으로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오염이 극심하다. 이번 교육과정 기준은 오타, 비문, 악문, 조악하고 중복이 심하다. 장별 구성도 엉망이다. 권고규정 아래 강행규정을 넣어 문서체계도 잡히지 않았다.

◆ 교과서 편향의 문제

- ◆ 교과서 또한 가치편향적으로 집필됨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집필진을 공모제로 뽑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정제로 개정팀을 꾸려 교과서를 제작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가지이다. 전체 총론과 성(gender)교육, 역사교육 문제이다. 교과서에는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나 논란적인 내용, 특정 집단의 견해, 정치적 편향성을 담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안정된, 합의된, 사실적,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오랜 전통의 내용인지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교과서를 제작해야 한다.
- ◆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 독립운동을 왜, 어떤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는지가 빠져있다. 학교지식은 사회분열, 갈등과 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보이텔스마흐 협약의 명기가 필요하다. 수업중에는 주입과 세뇌를 금지하고 논쟁 재현의 원칙을 지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 ◆ 좌파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을 우민화 하는 것이다. 현재 학생들의 학력저하

가 심각하다. 기본학습시간의 훼손도 심각하다. 학생에게는 시험이 중요한데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다. 게다가 산업사회, 지능정보사회인데 이공계 수업시간 비중이 30%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인문사회계는 50%이다. 초등학교사의 90%가 문과출신이며 중등학교 수업시간과 교사는 과학보다 사회가 더 많다.

◆ 교육과정 개선 방향

- ◆ 우리나라는 대학전공과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0%나 된다. 졸업생들은 전공과 적성에 따라 취업공부를 하기보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느라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중·고교나 대학 졸업생들은 직무수행능력을 증명하는 면허나 자격이 없다. 또한 대졸자들은 전공 분야의 지식보다 손쉬운 분야의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제값 받지 못하는 대졸자가 양산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을 보면 대통령과 지자체장, 300명의 국회의원 중 이공계가 29명이고 기술을 아는 사람은 4명밖에 되지 않는다. 수학·과학·기술은 근육과 지능이 부드러운 어릴 때 배워야 한다.
- ◆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은 진로를 상실했다. 너무 많은 선택과목과 동기저하로 다양한 문제가 많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면 진로별 이수체계를 안내하고 3학년 이수과정 중심설계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유용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규모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학교별 대학 입시 안내를 통해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을 줄여줘야 한다.
- ◆ 지금의 국가교육과정기준은 독점적 불량품을 모든 학교에 강매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은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완전공모제로 진행해야 한다. 실명을 밝혀 이름을 걸고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서는 학교가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 양질의 국가교육과정기준 중에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10년 주기로 백서를 만들어서 연차별, 순차별로 국가교육과정기준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단기, 일시적인 개정은 멈추어야 한다. 잠정결정형 진로지도를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고교와 대학의 학습을 연계하여 진로를 선택하도록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그런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더욱 늘려주어야 한다. 올바른 가치관은 교육에서 이뤄진다.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과정기준이 중요한 이유이다. 문제투성이인 교육과정안과 교과서를 본래 교육목표와 검정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